

최경록 “‘작지만 강한 팀’ 광주의 힘 보여주겠다”



광주FC 후아힌 캠프를 가다

태국=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작지만 강한팀’ 광주FC의 또 다른 역사를 위해 베테랑 최경록이 전면에 선다.

독일에서 10년을 뒀었던 최경록에게 광주는 K리그 첫 팀이다. 2024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고 아주대 시절 은사였던 이정효 감독과 재회한 그는 지난해에도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다. 32경기에 나와 1골 4도움을 올린 그는 경험을 바탕으로 침착하게 광주 공격의 연결 고리가 됐다.

지난 시즌 중반 부주장 역할을 맡기도 했던 그는 올 시즌에도 ‘캡틴’ 안영규를 필두로 신창무와 주장단을 구성했다.

새로운 사령탑으로 새출발을 하고, 선수단 등록금지 징계로 상반기에는 소수 정예로 선수들이 쉽지 않았던 광주에 그는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많은 역할이 필요하다.

쉽지 않은 시즌이지만 최경록은 그래서 더 광주가 강하다고 말한다.

그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팀을 더 끈끈하게 하는 게기가 되는 것 같다. 선수 숫자가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이 출중한 선수들이고 팀으로서 단단하기 때문에 좋은 시너지가 날 것이다”며 “규모나 환경 면에서 조금 작고 협

독일서 10년 경험 쌓은 베테랑 “침착하게 공격 연결 고리 역할” 팀워크·공격포인트 전면에 나서

소홀지 몰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이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 선수끼리 더 단단하고 끈끈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작지만 강한 팀’이다”고 광주의 힘을 이야기했다.

도전의 시즌을 앞두고 광주는 소용돌이로 팀워크를 더 단단하게 다지고 있다.

최경록은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장 안에서 뛰는 건 우리니까 감독님께서 지시해 주신 거 이행하면서, 선수끼리 안에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래도 선수들이 소통하는 부분에서 제일 큰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선수들은 광주만의 스타일에 새 사령탑 이정규 감독의 세밀함을 더하기 위해 태국 후아힌에서 1차 동계훈련을 하면서 손발을 맞추고 있다.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세밀한 기술 훈련을 병행하는 선수단은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2026시즌 전력을 다지고 있다.

기대감으로 새 시즌을 바라보고 있는 최경록은 올 시즌 팀을 위해 개인적인 욕심도 더 낼 생각이 다.

최경록은 “큰 목표라고 하면 감독님께서 말씀하

셨다시피 상위 스플릿에 들어가는 것이다. 개인적인 것이 중요할 것 같다. 팀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항상 경기장 안에서 열심히 뛰는 게 목표다”며 “팀에 도움이 되려면 막아내고, 골을 넣어야 한다. 공격수로서 공격 포인트도 많이 쌓으면서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 공격포인트 욕심을 더 내야 할 것 같고, 더 내고 싶다. 팀에 해를 끼치면서 욕심을 부리지는 않겠지만, 긍정적인 욕심을 내서 팀에 도움이 돼보겠다”고 팀 승리를 위해 전면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공격포인트와 함께 ‘팀워크’도 그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주장단 막내인 최경록은 “믿고 맡겨주신 만큼 형님들 보좌를 잘하겠다. 우리 팀이 한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고 그라운드 밖에서의 임무도 이야기했다.

최경록은 광주에서 두 번째 시즌이었던 지난해 많은 경험들을 했다. ACL 8강이라는 큰 무대에 서 봤고, 뜨거운 응원 속에 코리아컵 결승전도 치렀다. 개인적으로도 팀적으로도 경험이라는 자산을 쌓은 만큼 또 다른 무대를 위해 도전을 하겠다는 각오다.

최경록은 “축구는 게 결과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다. 코리아컵 준비를 잘했는데도 우승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다. 높은 무대를 계속 경험하면서 경험치도 많이 쌓았다”며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됐을 것이다. 또 다른 아젠 무대에 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의 최경록이 1차 동계훈련지인 태국 아이라 후아힌 축구장에서 슈팅 연습을 하고 있다.

이민성호, 10명 뒀 베토남 상대로 ‘줄전’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 선수들이 24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3·4위전에서 베트남에 패배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슈팅 수 32-5, 유효슈팅 수 12-3, 그러나 득점수는 2-2.

대표팀 경기라고는 믿기 힘든 수준의 압도적인 공격 지표가 쏟아졌지만, 정작 전광판에 새겨진 스코어는 이 같은 수치를 무색하게 했다.

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한국 23세 이하(U-23) 축구 대표팀은 두 살 어린 일본에 무득점 패배(0-1)를 당한 데 이어, 10명이 싸운 베트남을 상대로도 줄전 끝에 무릎 꿇고 대회를 4위로 마무리했다.

한국 U-23 대표팀은 지난 24일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킹 압둘라 스포츠 시티 홀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아시안컵 3·4위전에서 베트남과 전·후반 90분을 2-2로 비긴 뒤 연장전에서도 승부를 가리지 못해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6-7로 졌다.

준결승 ‘한일전’에서 선제골을 내준 뒤 무기력하게 밀려났던 한국은 이날도 같은 흐름을 반복하며 발전 없는 경기력을 노출했다.

특히 이날 한국이 기록한 ‘슈팅 32개’는 각급 대표팀 경기를 통틀어도 보기 드문 수치다.

전반 45분 동안 3차례에 그쳤던 슈팅은 후반과 연장전까지 약 75분 동안 29개가 쏟아졌다.

산술적으로 약 2분 35초당 한 번꼴로 상대 골문

아시아 U-23 축구 3·4위전 슈팅 32개·유효슈팅 12 기록 결정력 부재·골문 앞 ‘무기력’ 수비 불안…4위로 대회 마쳐

을 두드린 셈이지만, 정작 골문을 흔든 것은 단 두 차례뿐이었다.

무려 61개의 크로스를 배달하고도(베트남 4개) 마침표를 찍지 못한 ‘무딘 창’은 이민성호의 지독한 결정력 부재를 증명하는 지표가 됐다.

공격뿐만 아니라 뒷문도 불안했다.

조별리그 레바논, 우즈베키스탄전과 4강 한일전에서 모두 선제골을 내줬던 한국은 이날도 베트남의 역습 한 방에 무너지고 고질적인 수비 불안을 노출했다.

공식 기록은 무승부지만, 한국이 이 연령대에서 베트남에 패배한 건 10경기 만에 처음이다.

사실 이민성호는 조별리그부터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이란과 무득점으로 비긴 한국은 약체 레바논을

상대로 4-2 승리를 거두긴 했으나 2골을 헌납하며 불안하게 출발했고, 우즈베키스탄에는 0-2로 완패했다. 승점 4(1승 1무 1패)에 그친 한국은 탈락할 뻔했으나 레바논이 이란을 1-0으로 눌러 준 덕분에 우즈베키스탄(승점 7·2승 1무)에 이은 조 2위로 가스가 8강에 턱걸이했다.

단순한 기량 문제를 넘어선 전술적 무기력함도 빼놓은 대목이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선수들의 불충분한 기량을 커버하거나 전력 차를 극대화할 만한 전술적 방책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세밀한 약속된 플레이 대신 단조로운 공격 패턴만 반복하며 스스로 고립되는 양상을 보여줬던 베트남과의 마지막 일전은 이 같은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결국 대회 6경기 8득점 8실점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든 대표팀은 세대교체의 희망도, 아시안게임에 향한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한 채 과제만 남겼다.

오는 9월 개막하는 2026 아시안컵과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은 대회 4연패를 노린다. 그러나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금메달은커녕 조별리그 통과조차 장담하기 어렵다는 냉정한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MLS서 뒀 정호연, 은사 이정효와 수원서 재회

미네소타서 임대 합류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미네소타 유나이티드의 미드필더 정호연이 ‘은사’ 이정효 감독이 이끄는 K리그2 수원 삼성으로 임대됐다.

수원 구단은 24일 정호연을 임대 영입했다고 발표했다.

2000년생인 정호연은 K리그1 광주FC 유소년팀인 금호고 출신으로, 단국대를 거쳐 2022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미드필더다.

데뷔 시즌 당시 K리그2 팀이던 광주에서 리그 36경기를 소화하며 두각을 나타냈고, 1부로 승격한 2023시즌에도 주축으로 뛰며 리그 영플레이어상을 받았다.

2023년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한국

의 금메달 획득에 기여하며 병역 혜택을 받은 그는 광주를 지휘하며 K리그의 대표적인 명장으로 자리매김한 이정효 감독의 축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로 평가받았다.

1·2부를 합해 K리그 통산 기록은 106경기 3골 13도움이다.

2024년엔 성인 국가대표로도 데뷔했던 정호연은 지난해 2월 미네소타와 연장 옵션을 포함해 2028년까지 계약하며 미국 무대에 진출했으나 7월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받아 이후 잔여 시즌은 뛰지 못했다.

/연합뉴스

‘철기둥’ 김민재, 첼시 가나

독일 매체 “EPL영입 관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첼시가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는 ‘철기둥’ 김민재 영입을 추진 중이다.

뮌헨 소식에 정통한 독일 매체 빌트의 크리스티안 폴크 기자는 24일(이하 현지시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첼시가 김민재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폴크 기자는 또 뮌헨 소식을 전하는 CF바이에른인사이드를 통해 “첼시가 김민재와 관련해 뮌헨에 문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만약 김민재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얻기 위해 이적을 요청한다면 뮌헨은 협상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센터백인 김민재는 현재 뮌헨에서 ‘부동의 선발’은 아니다. 수비진 로테이션의 한 축을 맡고 있다.

김민재가 현 상황에 만족한다면 굳이 이적시킬 생각은 없지만, 만족하지 못할 경우 적절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다면 보내주겠다는 게 뮌헨의 입장이라고 폴크 기자는 설명했다.

결국, 김민재의 뮌헨 잔류 의사가 중요한 변수가 될 거로 보인다.

김민재는 그간 뮌헨에서 이적설에 휩쓸릴 때마다 잔류 의사를 강력하게 드러냈던 터라 그의 생각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들과 친정팀 터키 페네르바체가 그의 영입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문이 돌던 이탈리아 초에도 김민재는 팬들이 참석한 구단 행사에서 “이적 생각은 단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김민재의 경기력은 뮌헨 구단에 ‘100%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다.

2022-2023시즌 나폴리를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으로 이끌며 ‘리그 최우수 수비수’로 군림했던 압도적인 경기력을 뮌헨에서는 꾸준히 보여주지 못했다.

뮌헨 입장에서는 몸값은 높고 어느덧 29세가 된 김민재를 적정 가격에 매각해 수비진을 재편하는 게 낫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뮌헨이 김민재를 영입하면서 나폴리에 낸 이적료는 5000만 파운드(약 992억원)에 달한다.

/연합뉴스

‘다시, 뜨겁게’ KIA, 시즌 캐치프레이즈 확정

명예회복을 노리는 KIA 타이거즈가 2026시즌 캐치프레이즈를 ‘다시, 뜨겁게 Always KIA TIGERS’〈사진〉로 확정했다.

지난 3년 ‘포효하라’, ‘압도하라’ 등 강렬한 메시지를 담았던 KIA는 새 시즌 캐치프레이즈에 반동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KIA는 ‘디펜딩챔피언’으로 시즌을 열었던 지난해 1위에서 8위로 수직 하락하면서 명예회복을 숙제로 안았다.

“다시, 뜨겁게”는 선수단의 불타는 투지, 프런트의 아낌없는 지원, 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아우르는 캐치프레이즈로 타이거즈 구성원이 열정으로 다시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구자는 의미를 담



았다.

KIA는 또 팬들과 함께하면서 최고의 경기력으로 팬들에게 보답하자는 의미로 ‘Always KIA TIGERS’ 더해 정상을 향한 도전 의지를 표현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